

성장잠재력 높은 기업 상장문턱 낮춰 자본시장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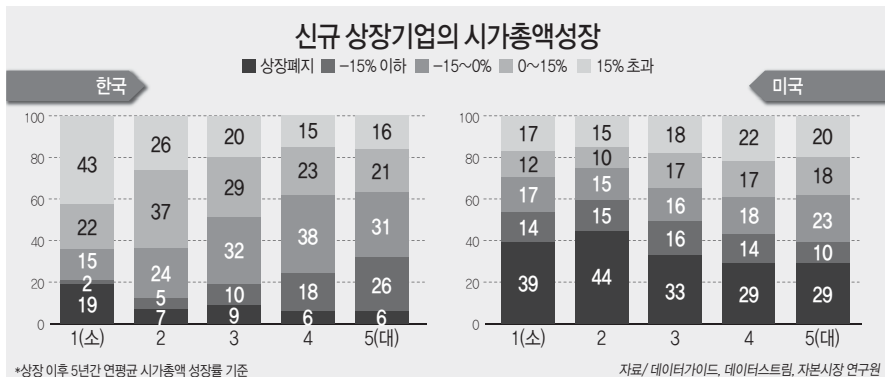
코스닥 밸리

(中) 혁신기업의 요람

재무건전성 치중해 시장 정체
정부, 불합리 규제 폐지해
우량 혁신기업 발굴 나서

코스피시장의 '2중대'로 평가받던 코스닥이 혁신 기업의 요람으로 변모할 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해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높아질 지 주목된다.

15일 주식시장에서 코스닥은 3거래일째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890선을 넘어섰다. 하지만 출범 시점의 기준지수인 1000 포인트에 비해서는 110포인트나 낮은 상황이다. 최근 나스닥 지수가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2000년 초 IT(정보기술)



비블 당시의 고점보다 34% 이상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코스닥은 20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작지만 혁신적인 기업 찾아나선다**
코스닥 시장이 정체된 요인 중 하나는 나스닥과 달리 재무 건전성에 치중해 혁신 기업의 상장에 소홀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 이 2001~2016년 국내 신규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하위 25%, 상위 25%는 각각

660억원, 259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상장기업 시총(각각 490억원, 2520억원)보다 규모가 더 크다. 소형주보다 중·대형주의 상장이 많았다는 의미다.

문제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성장 잠재력이 낮다는 점이다. 실제 시가총액을 5분위로 나눴을 때 신규 상장기업 중 상장 이후 5년간 연 15% 이상 성장한 기업의 비중은 1(소)그룹의 경우 43%에 달하는 반면 5(대)그룹의 경우 16%에 불과했다.

때문에 정부는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한 코스닥 혁신안에 따르면 계속사업이익 및 자본잠식 요건 등 혁신기업 진입에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했다. 또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 기준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해 진입요건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시장이 우량한 혁신기업을 성공적으로 발굴하고 투자자에게 그 과실을 적정하게 배분한다면 투자자에게 고위험·고수익 투자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전체 주식시장의 수익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투자자에게 믿음 주는 환경 조성**
다만 무분별한 상장으로 주식시장의 투자자보호 수준이 저하되는 결과가 나타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코스닥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실질심사대상 요건 확대

를 약속했다. 실질심사대상에 오르면 상장적격성 심사를 통해 퇴출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부실기업을 조기 적발해 퇴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공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불성실공시로 별점이 15점 이상일 경우 실질심사대상으로 넘기기로 했다. 또 개별 회사의 회계처리에 있어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을 회사와 감사인이 함께 선정하는 '핵심감사제' 전면시행을 통해 중요 경영위험에 대한 공시를 확대한다.

다만 이번 코스닥 혁신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시각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 해 코스닥시장의 불성실공시 건수는 71건으로 지난 2014년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공매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전용물이라는 점에서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보호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혁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영미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北 관현악단 서울·강릉서 공연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또 북측 예술단은 서울과 강릉에서 공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15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북한 예술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5개항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남북은 "북측 예술단의 공연 장소, 무대 조건, 필요한 설비, 기재 설치 등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고, 관련하여 북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전 점검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공동보도문을 전했다.

아울러 남북은 북측 예술단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으며, 기타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은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앞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북측 예술단 공연이 남북관계 개선 및 문화적 동질성 회복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원 기자 mediaeco@

'일감몰아주기'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107억

공정위 서영이엔티 부당 지원 등 편법승계 위해 불법 일삼아

하이트진로가 경영권 편법 승계를 위해 특정 관계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불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08년 4월부터 10여년간 총수 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엔티를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7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부당지원 주체 하이트진로 79억5000만원, 부당지원을 받은 서영이엔티 15억7000만원, 부당지원을 교사받은 삼광글라스 12억2000만원 등이다. 부당지원행위를 주도한 총수 2세 박태영 하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이 '하이트진로'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트진로 경영전략본부장(부사장)과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 등 경영진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하이트진로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본부장이 서영이엔티를 인수한 직후 과징금 인

력 2명을 파견하고,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했다. 이들 인력은 하이트진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인력으로서 서영이엔티 본사 핵심업무(기획·재무·영업)를 수행했고, 부당지원행위 등 하이트진로와의 각종 내부거래를 기획·실행했다.

또한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관을 서영이엔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공관 1개당 2원)를 지급하는 거래구조로 전환해 2012년말까지 지속했다. 서영이엔티는 이 덕분에 2007년 142억원에 불과했던 매출 규모가 2008년~2012년 연평균 855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익 제공 금액은 당기순이익의 49.8%에 달하는 56억 2000만원이다.

하이트진로는 2013년 1월 공관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공관 원재료인 알루

미늄코일을 구매할 때 서영이엔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공관 거래가 계열사간 거래이기 때문에 법외반 적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매출규모가 비슷하면서 외형상 비 계열사 거래로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며 약 1년간 지속됐다. 이에 서영이엔티는 59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하고, 해당 기간 영업이익의 20.2%에 달하는 이익(8억5000만원)을 제공받았다.

또한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엔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100%)을 키미메이타에 25억원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우회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 금액은 하이트진로의 미래 수익보장이 없었다면 책정되었을 정상가격(14억원)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에게 공관과는 전혀 무관한 글라스라캡(밀폐용기 뚜껑) 구매 시 서영이엔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했다. /박민용 기자 parkiu7854@

한줄 News

▲ **정치·정책**
여야가 개헌 관련 시기·정부형태 등 주요 쟁점을 두고 15일 열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부터 격돌했다.

▲ **국내 성인남녀 10명 중 3명 이상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화폐 투자 경험은 61.5%, 평균수익률은 무려 234%인 것으로 집계됐다.

▲ **산업**
2013년 설립된 **삼성전자 오디오랩**이 언론에 최초 공개됐다. 이곳에서는 오디오, TV 스마트폰 등의 음향 관련 기기들을 연구하며 원작자가 의도한 소리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를 맡는다.

▲ 세계 5대 모터쇼인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개막했다. 이번 모터쇼에서는 픽업트럭과 SUV에 밀렸던 세단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 **금융·부동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자산건정성 부문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지방은행은 거점지역 경기부진과 부동산 경기 변동성 등으로 중소기업대출 확대 여력이 줄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 올 상반기 경기도 **분당·과천과 하남·위례**에서 분양대전이 펼쳐진다. 이곳은 서울 강남과 가까운 데다 주거여건이 양호해 인기가 높은 지역이다.

5대 신산업 기업연구소에 200억 지원... 일자리 30만개 창출

(자동차·IoT)
산업부, R&D 예산 30% 투입
ATC사업 신규 지원계획 공고

문재인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 중 주요 정책과제인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주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차관을 반장으로 한 특별전담팀(TF) 구성에 이어 5대 신산업 분야 기업부설 연구소에 5년 간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

정부는 일자리 30만 개 창출을 목표로 올해 산업부 연구개발(R&D) 예산의 30%인 9200여 억원을 5대 신산업 프로젝트에 투입하기로 한 만큼 향후 추가 계획들이 계속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 신규 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003년부터 2017



지난해 11월 대구 엑스코에 개최된 '제1회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에서 현대자동차 방문객들이 '아이오닉 4D VR'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년까지 501개 기업부설 연구소를 ATC로 지정할 바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5대 신산업 프로젝트 관련 ATC를 10개 이상 선정, 앞으로 5년간 2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정된 ATC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분석 컨설팅 등과 연계한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도 이뤄진다. 산업부는 다음 달 26일까지 이번

사업과 관련한 계획서를 신청받고 4월 중에 최종사업자를 선정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9일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5개 분과로 구성된 TF는 세부 이행전략 수립부터 실질적 성과 창출까지 선도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 임무

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강력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조적 문제점과 시대적 요구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달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책 방향에 포함된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는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으로 신산업 창출을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 개 이상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전기·자율주행차의 경우 2020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성공시키고,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 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연계된 IoT 가전 기술을 개발하고 가전, 건설, 통신, 자동차, 의료 등 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